

전북대, FAO와 글로컬30 사업 협력

〈세계식량농업기구〉

에바리스트 니콜레타 조정관
양오봉 총장과 협력 방안 논의
오늘 농생대서 세계식량 특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위원회 고위급 전문가 패널인 에바리스트 니콜레타(Evariste Nicoletis) 조정관은 22일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한 농생명 산업 분야와의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대를 방문했다. 오는 26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일정을 소화하는 에바리스트 니콜레타



세계식량농업기구 식량안보위원회 고위급 전문가 패널인 에바리스트 니콜레타(Evariste Nicoletis,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조정관은 22일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관련한 농생명 산업 분야와의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대를 방문했다.

조정관은 22일 양오봉 총장을 만나 세계식량농업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에는 전북대 농생명과학대

학에서 농업 및 식량 분야의 연구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식량과 농업 개발의 최신 동향과 과제에 대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 농생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개발과 공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니콜레타 조정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식량농업기구와 협력의 물꼬가 트여 우리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업 및 식량 분야는 우리대학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대가 세계식량농업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전주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개최

교육감 교육·학예 사무의견 제출권 등 특별법 개정 대응책 협의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이 전주에 모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23일 이틀간 전주 일원에서 2024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의 교육분야 특례를 공동 발굴하고, 관련 정보 교류 및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교육 분야) 개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또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의 교육특례 추진현황과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북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현행 특별법이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하도록 돼 있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특별자치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한 자치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무협의회 공동회장인 운영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년 성과 평가서 '우수'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평가에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원스톱 청년 취업 인프라 구축,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청년고용서비스 및 청년 체감도 등 총 3개 영역에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원광대는 지난 201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평가부터 4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사업비 추가 인센티브 확보에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평가에서도 3년 연속해서 우수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 기관상 및 개인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원광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할 예정인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도 참여해 재학생, 지역청년 및 고교생까지 아우르는 취업지원 토탈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지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앞으로도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지역청년 그리고 고교생까지 진로 설계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오후 1시 30분 전북대학교 뉴실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이번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개국 132명의 학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유학생 유치 기반 닦는다... 전북대, '필링코리아' 진행

2주 동안 대만 등 6개국 132명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 참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22일부터 2주 동안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필링코리아(Feeling Korea)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뉴실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이번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개국 132명의 학생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은 평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들 중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위해 해외 대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필링코리아 프로그램 역시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14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해 전북의 우수 관광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전북대의 교육 인프라를 알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외국인 학생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전북대에 체류하며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기초 회화를 익

히고,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한복체험, 비빔밥체험, 수제도시 만들기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주 태권도원, 진안 홍삼스파, 서천국립생태원 등도 방문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조화림 국제처장은 "이번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은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전북대학교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단기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고, 나아가 유학생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 체계 구축

국립군산대 학생상담센터, 군산시가족센터와 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제2 학생회관에서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가족센터와 다양한 가족 문제 연계 및 유학생 통번역 지원을 위한 이번 업무 협약식은 엄기욱 군산대학생상담센터장, 천은영 군산시가족센터장과 양 기관의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양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재학생 사례를 연계하고, 자원 활용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개최 시 홍보 협조 및 행정 등의 지원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군산시가족센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 전라북도청년미음건강센터,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전북스마트쉼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의 자살·임신문제·알코올의존·스마트폰의존·도박문제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상담 및 복지체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져왔다. 간담회를 통해 군산대에 사는 지역사회 심리전문기관들이 함께하는 행복온도 올리기 캠페인과 자살, 도박, 스마트의존 예방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엄기욱 학생상담센터장은 "각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